

# 삼일제약, '안질환' 나노 신약으로 글로벌 강자 입지 굳힌다

CDMO 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APP 13007 위탁생산 계약 체결  
베트남 공장서 생산, 해외 시장 공급

삼일제약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매출 개선, 연구개발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13일 삼일제약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CPHI 2024)'에서 삼일제약 베트남 법인과의 대만 바이오테크 기업 포모사파마 슈티컬스는 'APP 13007' 위탁생산(CMO)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대만 포모사가 개발한 'APP 13007'은 안과용 나노 현탁액으로, 안과 수술 환자에게 쓰이는 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에 최초로 나노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포모사는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APP 13007에 대해 '안과 수술 후 통증 및 염증 완화'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포모사는 다수



삼일제약 베트남 법인의 글로벌 점안제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전경. /삼일제약

의 위탁생산 업체들과 글로벌 공급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APP 13007은 삼일제약 베트남 S1 플랜트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공급될 예정이다. 상업용 배치 생산이 완료되면 양사는 향후 5년 동안 2000만달러(약 27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APP 13007의 한국 및 베트남 내 판매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삼일제약은 이번 성과를 통해 베트남

시설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지난 2022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공단'에 생산동 3층, 사무동 4층 규모로 준공됐다. 현재 3개 생산라인을 갖춰 연간 최대 6000억원 수준의 약 3억3000개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는데, 5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 총 8개 라인으로 확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베트남 의약품청(DAV)으로부터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GMP 인증 절차를 밟는 등 2026년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GMP, 유럽 의약품청(EMA)의 EU GMP 등을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일제약은 베트남 현지 시설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삼고,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025년 베트남 점안제 공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수주에 초석을 놓은 삼일제약은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 1086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42.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은 올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독점 판매해 출시 첫 달에만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안과 질환 제품

뿐만 아니라 삼일제약 주요 품목인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전문의약품 제품군의 매출도 지속 성장했다는 것이 삼일제약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삼일제약은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개광 신약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로어시비린트',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신약 '아람콜' 등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앞서 지난 2021년 3월 로어시비린트에 대한 국내 허가 및 판매 독점 권리를 확보했는데, 2022년 기준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는 400만명 이상으로, 로어시비린트 대상 환자는 250~3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로어시비린트가 삼일제약 실적 개선을 이끌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삼일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 아람콜의 경우 국내 판권은 국내 최초 발매 후 삼일제약이 20년간 보유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두 제품 모두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롤루레몬 “‘웰빙 번아웃’ 극복, 함께 움직이세요”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요’ 캠페인  
APAC 외신기자 등 100여명 참석

지난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서는 롤루레몬의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요' 오프라인 캠페인이 진행돼 웰빙(Wellbeing)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홍콩 엘르·에스콰이어, 일본 보그·WWD, 대만 GQ, 뉴질랜드 맨즈 헬스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APAC)의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국내외 60여개 언론 매체, 롤루레몬 앰배서더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붐볐다. 롤루레몬과 강남구청 주최로 열린 이



(왼쪽부터) 지안 파블리코 브랜드·프로덕트 디렉터, 케리 마르티네즈 롤루레몬 홍콩 공항 스토어 매니저, 크리스타 리 롤루레몬 러닝·리더십 파트너가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번 캠페인은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롤루레몬 오프라인 행사로, 그룹 액티비티를 통해 함께 웰빙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아가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영사는 지안 파블리코 브랜드·프로덕트 디렉터, 케리 마르티네즈 롤루레몬 홍콩 공항 스토어 매니저, 크리스

타 리 롤루레몬 러닝·리더십 파트너가 진행했다.

케리 마르티네즈 매니저는 “롤루레몬은 상하이·뉴욕·서울·한국 등 전세계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날 캠페인에 관해 설명했다.

롤루레몬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호주·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한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 15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원의 웰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웰빙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김광원 한국당노협회장(왼쪽)과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당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 “당노 환자의 삶 개선”

유한양행이 지난 11일 한국당노협회와 '당노인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한국당노협회 공식 후원 업체로서, 혈당 유산균 당류락을 내세운 당화혈색소 인지 캠페인을 펼치고 당노인 및 일반 대중의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지원한다.

유한양행은 한국당노협회와 함께 당뇨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 콘텐츠를 발행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붉은 주름부터 승모근 피부 유연함까지”

중근당건강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중근당건강의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는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중근당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팔사 목주름크림으로, 기존 '레티노콜라겐 팔사 목주름크림' 대비 콜라겐과 레티날 성분이 2배 더 강화됐다. 또 브랜드 독자 성분인 '필톡 포몰라'를 함유하고 있다.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은 목주름 관리에 효과를 갖췄다는 것이 중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목 부위 가로 주름, 세로 주름을 비롯한 붉은 주름부터 승모근 부위 피부 유연함까지 한 번에 관리해 준다. 아울러 붓기 완화, 혈행 개선, 보습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파



씨케이디 개런티드 '레티노콜라겐 저분자300 팔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중근당건강

사지 제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중근당건강은 팔사 뷰티 제품군을 꾸준히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오렌지맛 비타민 젤리로 간편한 에너지 충전

동아제약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

동아제약이 신제품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을 전국 CU편의점에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C를 함유한 젤리다. 1포당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의 비타민C와 비타민E 100%, 아연 30%를 함유해 종합적인 영양 보충이 가능하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아침 출근이나 등교 시,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해 비타민C 보충이 필요할 때 등 일상에서 섭취하기 적합하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 /동아제약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은 오렌지 과즙이 터지는 쫄쫄한 질감도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4년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을 공개한 후 현재까지 분말, 정제, 츄어블, 구미젤리, 팝핑캔디 등 다양한 제형과 맛을 선보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 이랜드파크 컨싱턴호텔앤리조트 '올 어바웃 바비큐' 기획전

이랜드파크의 컨싱턴호텔앤리조트는 캠핑하기 좋은 가을 날씨를 맞아 각 지점별 특색있는 바비큐 상품이 포함된 '올 어바웃 바비큐' 기획전을 내달 20일까지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각 지점은 아름다운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뷰 맛집 바비큐', 객실 내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팸(Pet+Fam ily)족 바비큐' 등 지점별 콘셉트를 반영한 패키지를 출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